



한미 FTA타결을 계기로 광주지방법원 내 외국법 연구회가 외국법 등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3일 김관재 법원장을 비롯한 미국 헌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법원 회의실에서 미국 법전을 놓고 공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관재 법원장·김유진·최인규·김영아·김용찬·노미정 판사.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판사님들은 지금 '열공 중'

(열심히 공부)

법관들이 '열공'(熱功)에 빠졌다. 한미 FTA 타결에 따라 법률시장 개방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광주지방법원 판사들이 외국법과 최신 해외 판례 연구에 나선 것이다. 현재 광주지방법원 판사들이 결성·연구에 한창인 학회들은 미국 형사소송법 연구회 등 총 9개. ▲미국 형사소송법(회원 12명) ▲미국 헌법 I (9명) ▲미국 헌법 II(6명) ▲미국 제조물책임법(6명) ▲미국 노동법(6명) ▲미국 세법(4명) ▲미국 가족법(8명) ▲독일 형사소송법(4명) ▲중국법(4명) 등이다.

최근에는 외국 연수를 다녀온 판사들과 초임 판사들까지 가세하면서 연구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회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하고 외국어 원서로 된 외국법을 번역한 뒤 1~2시간씩 우리나라 법제와 비교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인다.

이들 연구회는 앞으로 다뤄질 미국 관련 기업들의 각종 소송과 외국계 로펌들의 진출 등에 대비해, 미리 선진국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뜻에서 시작했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가 지적재산권·국제통상 등 각 분야에서 미국법의 영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연구회 출범의 동기를 제공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법이 세계적인 추세에 뒤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도 작용했다.

이들 연구회 이외에도 법원 내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 스터디 그룹도 생겼으며, 외국어 학원에 다니는 법관들도 늘고 있다.

광주지법 최인규 판사는 "법률개방시대에 맞춰 보다 수준 높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광주지법, '한미 FTA' 계기

미국법 등 9개 연구회 활동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 제공"

'구속 40대' 아들 먹이려 한 음료는 양젓물

국과수 성분 분석 결과

광주 북부경찰청은 3일 자녀를 삼습 폭행(본보 4월26일자 8면)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강제 먹이려 한 음료수에서 '수산화나트륨'(양젓물)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 의뢰 결과, 노모(45·광주시 북구 중흥동)씨가 아들에게 물에 타 준 백색 가루는 수산화나트륨이었다. 수산화나트륨은 부식성이 강

한 무색 무취의 고체로 음용시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고, 식도 점막을 녹이면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노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집에서 아들(14)이 가출한 아내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아들을 폭행하고 음료에 독약을 넣어 먹이려 했다가 구속됐다. /이종형 기자 galee@

전남, 노인 의료비 전국 최고

작년 4,464억원 지출...총 진료비의 35% 차지

전국 평균보다 10% 높아

전남지역의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노인 의료비 지출과 1인당 월평균 진료비 비중이 전국 최고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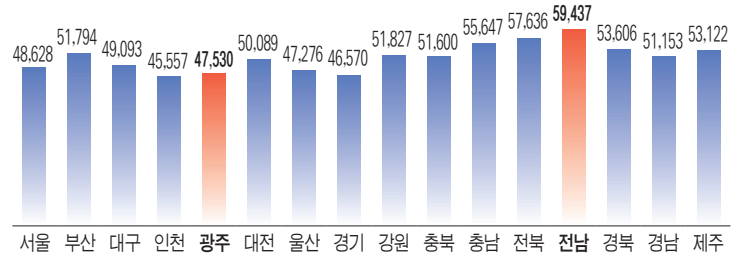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열린우리당)의원에 게 제출한 '2006년 전국 시·도별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65세 이상 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4천464억원(비급여 제외)으로, 전남지역 총 진료비 1조2천772억원의 3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노인의료비 비중인 25.9%에 비해 무려 10%가량 높은 수치로, 전남지역의 심각한 고령화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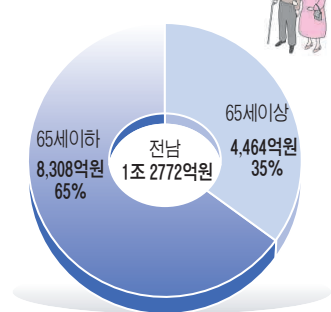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18만4천905원으로, 전남지역 1인당 평균 의료비(71만3천원)에 비해 1.7배가량 많았다.

지난해 전남지역 노인은 1명당 5.1일을 입원했고, 34.3일은 외래로 병원을 이용했다. 입원 환자는 대부분 ▲

2006년 거주지역별 1인당 월진료비(원) 현황



65세이상 노인 진료비



노인성 백내장 ▲뇌경색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당뇨병 등이었으며, 외래 환자는 ▲고혈압 ▲배통(背痛) ▲무릎 관절증 ▲감기 ▲급성기 관외염 순이었다.

노인 인구 비율이 14.9%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전남지

역의 1인당 월 평균 진료비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1인당 월 진료비는 5만9천437원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월 진료비 4만9천938원에 비해 1만원 가량 높았다. 다음은 노인 인구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전북(5만7천636원) ▲충남(5만5천647원)이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의료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건강검진을 받는 수진율(受診率) 제고·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 예방 중심의 지역 보건프로그램 활성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반달곰 '천왕' 자연 적응 실패

구례 생태학습장 복귀

자연사에 방사돼 있는 반달곰 습골 13마리 중 러시아 연해주산 '천왕'(3세)이 자연 적응에 결국 실패해 지난 1일 지리산을 떠나 구례 인근 인공 생태학습장으로 잡혀왔다.

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천왕'은 지난해 8월부터 등산로에 자주 나타나 탐방객들을 멀리하지 않고 먹이를 얻어먹으며 생활하다 기존 생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져 대인기과 훈련

등으로 집중 관리를 받았다.

천왕은 그러나 지난 4월 동면에서 깨 뒤 작년 가을에 머물던 등산로로 되돌아가 사람을 따라다니는 등 야생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야생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돼 회수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왕이 이미 사람들과 친숙해져 야생에 더는 머물기 어렵게 됐으며 야생성 부족으로 이미 회수된 곰 3마리와 함께 생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여대생 원룸에 침입

성폭행·금품 빼앗아

20대 남성이 원룸에 혼자 사는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3일 새벽 4시25분께 서구 A원룸 B(여·22·광주 모태 3년)씨의 집에 신원을 알 수 없는 20대 남성이 침입해 B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고 현금 9만5천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조사 결과 범인은 원룸 창문으로 몰래 들어와 주방 커튼 뒤에 숨어 있다 B씨가 들어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니원침 (7200) 김장두



Advertisement for KCC construction materials, including DS Construction and Sunbont Korea.

'집 안사준다' 80대 내연남 폭행

○40대 여성이 "만나주면 집을 사주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80대 내연남을 폭행했다가 경찰서행.

○3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여·48·미용사)씨는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던 조모(80)씨 집을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지난 달 12일 아파트에 찾아가 얼굴을 활퀴고 세숫대야로 머리를 때렸다는 것.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5년 전부터 사귀어온 조 노인이 '집을 사주겠다'고 약속해 이제나 저 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끝내 사주지 않아 화가 나서 짜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

○하지만, 전직 교사인 조씨는 "집을 사줬으면, 벌써 나를 떠났을 여자"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장.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Joy Travel, featuring cruise packages to Osaka, Japan, and Europe, and a 'Zangsa' (장사) travel agency advertisement.